

## KISTI 가족 여러분 !

새롭게 밝아온 2008년, KISTI는  
급변하는 수요자들의 요구와 R&D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선택과 집중'에  
사업의 최우선 가치를 둘 계획입니다.



2008년 무자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직원 여러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KISTI는 첨단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KISTI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한 해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이치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힘든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신뢰와 열정으로 저를 따라와 준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07년은 KISTI가 '첨단 과학기술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중추기관'으로 한 걸음 크게 도약한 중요한 해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객가치 최우선 마인드와 직원간의 신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KISTI WAY'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고객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외 30여개 기관들과 새롭게 업무협정을 맺어 기관의 협력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을 시작해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불가능이 없는 첨단 R&D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이기종의 슈퍼컴퓨팅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묶는 '국가슈퍼컴퓨팅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국가차원의 슈퍼컴퓨팅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의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341개 국가 R&D 사업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과학기술 중앙정보센터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국가 e-Science 구축사업'의 경우엔 KISTI Top Brand 사업으로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e-AIRS, e-HEP 등 4개 분야에 성공적으로 시범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업무협력협정을 맺어 사이버 상에 '한·프랑스 국제연합연구실' 설치를 추진하고, 미국 최고의 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 연구기관인 샌디에고 대학 CALIT2에 'Korea e-Science Global Lab'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사이버 협업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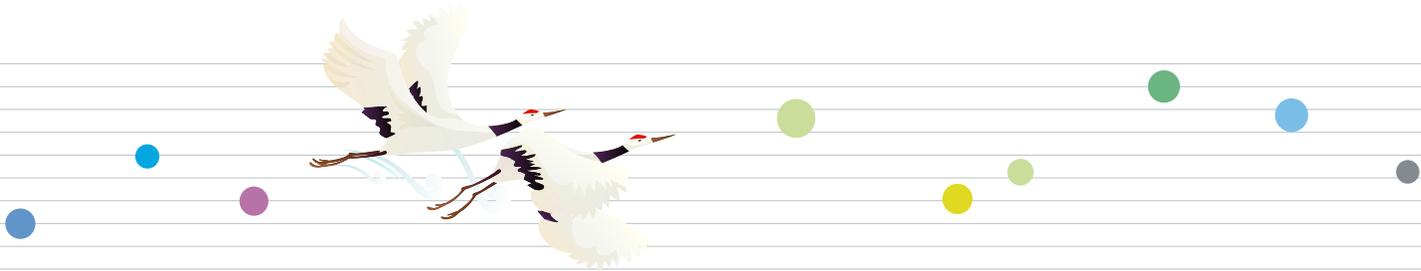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제9회 HPC Asia 2007 Conference & Exhibition'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KISTI의 슈퍼컴퓨팅과 e-Science 연구 환경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연구원은 또 지난 한해 국가 과학기술정보서비스 혁신사업인 'KISTI Service 2.0'을 새롭게 추진해 KISTI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웹 2.0 환경에 맞게 '고객중심'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u-Library'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유통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ICSTI) 2008년 한국개최를 확정 받아 KISTI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래유망기술 아이템 발굴은 물론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성공을 위한 R&D 정보포털 서비스, 첨단 슈퍼컴퓨팅 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탄탄히 이뤄냈습니다.

우리연구원은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성과들을 직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뤄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ISTI 가족 여러분!**

최근 글로벌 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환경의 발달로 정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고객 파위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요구는 점점 더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밝아온 2008년, KISTI는 급변하는 수요자들의 요구와 R&D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선택과 집중' 에 사업의 최우선 가치를 둘 계획입니다.

**첫째, 'KISTI Service 2.0'을 전 기관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자원 개발에서부터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고객 피드백과 서비스 개선 등 각 프로세스별 혁신을 통해 KISTI의 국가 과학기술정보서비스가 고객중심으로 확실히 체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u-Library'가 더욱 체계적인 고객중심형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웹인 시맨틱 웹 기술을 자체개발하고 전문적 시맨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300테라플롭스 규모의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수준의 슈퍼컴퓨터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해 국내 연구자들이 부족함 없이 슈퍼컴퓨팅 자원을 맘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4호기의 성능에 맞게 거대도전과제, 전략과제 등 연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더욱 전문화하겠습니다. 또 급증하는 슈퍼컴퓨팅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충북대학교 내에 '슈퍼컴퓨터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슈퍼컴퓨터를 과학기술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사이버 협업 인프라를 기반 구축의 단계에서 연구현장에 직접 활용되는 실질적 응용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성능연구망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융합연구망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연구자들이 시공의 제약 없이 대용량 데이터와 첨단 장비, 연구 인력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버 연구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글로벌과학기술협업연구망 GLORIAD를 통해 국제적인 사이버 협업 환경 기반도 보다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부처별로 관리되던 국가 R&D 사업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의 정보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국가 R&D사업의 조사·분석결과, 인력정보, 연구 성과 정보, 첨단장비 등을 범부처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유통 플랫폼을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최신 글로벌과학기술동향과 미래유망기술 분석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산업·기술시장 정보를 조사·분석·평가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yeskisti.net과 NDSL 등 전문적인 R&D 정보 포털 서비스를 통해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을 보다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첨단 슈퍼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사업성공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과학기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해 R&D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 중복과 연구방향 오류로 생기는 연구비 손실, 연구 지연 등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임으로써, 연구자들이 오로지 연구에만 올인 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올 한해 KIST는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IST 가족 여러분!**

지난 2007년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고, 유가가 사상 최고로 치솟는가 하면, 코스피 지수 2000 돌파라는 기록적인 사건과 학력위조 파문이 전 사회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어민과 황폐화된 환경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태안의 기적’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난관이 닥쳐와도,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쳐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저력을 이제 KIST에서도 발휘해 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관의 각 사업들을 중요도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고객의 가치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 하겠습니다.

KIST에서 추진하는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슈퍼컴퓨팅, 사이버

협업 인프라 구축, 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들이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뤄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또한 자신의 업무에 강한 동기를 부여받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 시스템을 명확히 하겠으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KIST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라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직원 모두에게 각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KIST 가족 여러분!**

경제침체라는 말이 많이 듣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이 강력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KIST가 가장 먼저 튼튼한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이 국가 과학기술계 전체의 경쟁력, 아니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2008년에도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1월 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양병태*